

치 사

불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전에 계셨던 여섯 부처님께서서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 공통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악한 일은 짓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라’는 가르침이며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 가르침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독립언론인 법보신문이 공동으로 펼치는 ‘불자답게 삽시다’ 캠페인은 불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자들이 ‘불자답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곧 ‘수행자가 수행자답게 정진’할 수 있도록 외호하고 발원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가불자 스스로 불자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써 출가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 사부대중 공동체는 더욱 맑고 향기로운 ‘수행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사부대중 모두는 불자답게 살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 서 계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선언하는 ‘불자답게 삽시다’에 뜻 깊은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깊게 새기며 또한 널리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37가지 실천’ 발원에는 불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에서부터 사부대중을 향기로운 공동체로 장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부처의 씨앗이 자라는 실천 계행, 그리고 더불어 사는 정토 구현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하루하루 정신의 삶에 다가가는 지침이 되어줄 것이며, 누구나 쉽게 실천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불교로서 눈높이를 이웃의 이웃에게, 그리고 평범한 불자들과 함께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불자답게 삽시다’의 선언이 전국 불자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고 실천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전체를 불자다운 세상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전환하는 일대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종단 역시 종무기관은 물론 전국 교구본사와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교구 및 각 사찰 신도회가 ‘불자답게 삽시다’ 캠페인에 수희 동참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한껏 모아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불자답게 삽시다’ 캠페인을 주관하는 법보신문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서원이 현대인의 삶을 한층 맑게 하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이어져, 모두의 행복으로 활착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3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